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호 【루계 제25514호】 주체106(2017)년 1월 5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림준길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받아안고 충천한 기세로 새해 첫 전투를 진행하는 날에 최고령도자동지를 뵈옵게 된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평양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통일거리에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은 연건축면적이 1만 590여㎡이고 년간 24만 2,000여개의 학생가방, 6만여개의 일반가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크고 현대적인 가방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좋고 멋있는 가방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착공의 첫 삽을 박은 지난해 7월초부터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방대한 가방공장건설을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에서는 지금 학생가방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질좋은 가방들을 짱짱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 락랑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수도의 면모에 어울리게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견본실, 재단작업장, 재봉작업장, 포장작업장, 과학기술보급실, 통합조종실, 기술준비실, 도안창작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견본실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을 진렬해놓았는데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한 가방천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의 가방들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재단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레이자재단기를 비롯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았다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하시였다.

종합적인 가방생산기지답게 기술준비실과 도안창작실도 잘 꾸려놓았으며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보다 원만히 할수 있도록 공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생산체계도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완성제품창고에는 가방이 그득히 쌓여있고 원자재창고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등에서 생산한 가방천과 자크, 테프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들이 가득 차있는데 정말 흐뭇하다고 하시였다.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제작과 로동자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건설이 끝나는것과 함께 생산을 시작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상표를 특색있게 만들데 대한 문제, 질제고에 큰 힘을 넣어 공장제품을 인기상품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가방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수 있게 도안창작을 잘할데 대한 문제, 년령신체적특성에 맞게 가방의 규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며 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은 보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교양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의 계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하였는데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각 도들에 가방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건설하자고 하였는데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남보다 먼저 최상의 수준에서 기어이 끝내고야 마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새에 의해 평양가방공장과 같은 희한한 창조물이 보란듯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해전투에 진입한 평양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생산에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가방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의 투쟁을 전투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숭고한 자욕을 새기시며 자주 찾아와 생산정형을 알아보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쳐 앞으로!

일심단결,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행로와 휘황찬란한 래일이 이 긍지높은 말속에 숭엄히 함축되어있다.

전인민적인 현속공격전, 강행돌파전, 류례없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으로 수놓아온 력사적인 지난해를 총화하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해지고 엄혹한 난관이 겹칠수록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였기에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 강행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천하제일강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걸출한 령도가 있고 원수님께서 억년 반석같이 다지시는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이 있기에 최후승리에로 향한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약속되여있다.

이것이 조국청사에 미증유의 사변을 안아올 희한한 2017년의 승리를 향하여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 *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다. 이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사에 새겨진 고귀한 진리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한 2016년,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는 첫 진군길에 용감무쌍히 떨쳐나서 만난을 과감히 박차며 증산투쟁, 창조투쟁으로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온 지난해는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인 일심단결을 실천으로 확증한 참으로 의미심장한 해이다.

70일전투, 200일전투의 벅찬 나날들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적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최절정에 달한 최악의 나날이였다.

시련을 당하며 흩어진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신념의 성새, 단결의 성새를 쌓은것이 조선의 모습이였다.

그 노도와 같은 철의 대오가 전민결사전, 만리마의 새시대를 란생시켜 지난 시기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거창한 창조대전이 펼쳐졌다.

당이 내세운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방대한 목표 빛나게 수행,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성공,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 확립, 농업생산에서 풍작혼을 부를수 있는 다수화물종들을 육종…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생산과 수송전투목표 수행,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고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 창조, 체육부문에서 련속 훌륭한 성과 확대,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

련속적인 철야전군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년들이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글발없는 공격정신과 어떤 억경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상, 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단결의 위력앞에서 원쑤들이 휘두르는 그 어떤 무기도 감히 맥을 추지 못하였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한 나라, 한 민족이 도달할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의 최절정에서 자기의 생명, 비약의 원동력을 실증하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제끼였다.

2016년, 조선은 이 경이적인 모습으로 세계를 놀래웠다.

못 잊을 그 나날을 우리 원수님이 잊으실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바로 이것이 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지난해의 거창한 성과를 숭엄한 격정속에 돌이켜보는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위대한 일심단결의 화원이 펼쳐지던 나날이 뜨겁게 갈마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정치철학인 일심단결의 뿌리는 명실공히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다.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지난해 자연의 엄혹한 대재난을 당한 함경북도의 북부지역에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정한 위대한 어머니당의 조치를.

온 나라를 삼시에 올린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구절구절이 지금도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쩡쩡 메아리친다.

돈과 권력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고 흉내는 더욱 낼수 없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중대사가 없고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을 모르는 위대한 조선로동당만이 걸칠수 있는 일대 정치정론이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을 모르시는분, 위대한 생의 한순간한순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중대결단이였다.

당장 닥쳐올 추위를 걱정하시여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피해지역 인민들에게로 마음을 달리시며 나라의 인적, 물적재부를 통채로 기울이신 우리 원수님,

우리 원수님께서 가슴쓰라려하시면 미어지게 아파하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북부피해전역으로 마음과 마음을 달리였다.

그 눈물겨운 정과 열이 안아온 전화위복의 기적적인 승리였다.

꿈만 같은 행복의 보금자리에 살림을 편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의 심장의 목소리가 지금도 매일, 매 시각 우리 천만군민의 페부에 뜨겁게 스며든다.

그들이 흘리는 격정의 눈물에 다 씻어있다.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 땅을 인간사랑이 넘쳐나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으로 가꾸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행복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우리 원수님만 믿고 변함없이 모시고 따를 불타는 일편단심이.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늘 외우시는 우리 어머이,

온 한해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헌헌히 걸으시고도 많은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 희한한 불고기대풍소식을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한시바삐 전하고싶으시여 만사를 제쳐놓고 바람세찬 포구를 찾으신 우리 원수님,

포구들마다에 불고기비린내가 팍 차넘치는데 이 냄새를 맡으니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부모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하시며 그처럼 행복의 미소를 지으신 우리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보내줄 불고기를 배전이 넘치게 가득 싣고 귀항한 어로공들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고기비늘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추운 날씨에 날바다에 나가 수고들이 많다고 그들의 수고를 다심히 헤아려주신 우리 원수님,

온 한해 어떻게 하면 인민들과 병사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멸사복무의 강행군에 박차를 가하신 우리 원수님…

이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께 진심으로 매혹되여 애오라지 그이께로만 달리는 불타는 심장, 그이께 기쁨드릴 열망으로 팔리고 또 팔려온 우리의 천만리가 아니던가.

기쁨도 아픔도 그이와 함께 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최후승리의 좌표를 향하여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질주하던 나날 우리 다같이 심장으로 절감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는 오직 주체조선에만 있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무기, 그것만 있으면 영원토록 자주적군위병의 존엄을 떨치고 민족만대로 번영할수 있는 무기,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의 무기인 일심단결이 있다고!

그치럼 간고하였던 시련의 나날 류례없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꾸시여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위력을 천만배로 떨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할 업적으로 기적적인 통장혼을 련속 부른 눈부신 승리의 로정이였다.

참으로 조국청사에 분수령으로 솟구쳐오른 승리와 영광의 2016년에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매일, 매 시각 부르신 승리의 통장혼은 만만년민족사에 특기하고 불멸할 위대하고 력사적인 대승리로 길이 빛날것이다.

지난해의 성과는 우리의 긍지인 동시에 억만금보다 귀중한 재부이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이다.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천당, 전군, 전민이 한사람같이 총매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만천하에 떨치게 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굳히시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뜻깊은 신년사에서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자신을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누구도 상상할수 없고 누구나 쉽게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승리로 세계정치계를 경탄시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정치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매혹으로 끌어번지게 하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정치이다.

천만군민이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 무강번영의 진군길을 용감무쌍히 열어나가는 우리의 일심단결, 그 무서운 철의 흐름을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파괴자, 인권의 유린자 미제와 그 하수인들이다.

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로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달리는 우리에게 원쑤들은 백천번도 더 위협공갈의 무기를 내대고 우리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기 위해 별의별짓을 다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흠모심, 오로지 원수님만을 그리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건 오직 그이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의 위대한 일심단결,

창밖에 눈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뿌려지는 날이면 선군길에 제실 어버이의 안녕을 충심으로 바라며 잠못 이루고 자기들은 철야전투를 하면서도 원수님께서만은 밤이 깊으면 푹 쉬여주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인민, 자연재해로 흙지에 한지에 나앉았어도 자기들이 살아갈 걱정에 앞서 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가를 생각하며 순결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일심,

돈과 권력으로는 구할수 없는 우리의 이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는 한 이 땅에서는 《세상에 무럼없어라》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릴것이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총체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 혁명이 내세우는 국사중 국사는 조선의 운명이시고 세계의 자주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에 우리의 운명인 선군정치의 승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가 있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가 달려있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할수 없는 전민족적인 위업이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리자.

원쑤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이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것이다.

일심단결의 근본핵은 당과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이다.

당과 령도자에 대한 충정을 근본핵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의 행군길은 당과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순결한 량심을 지닌 충신들이 걷는 충정의 진군길이다.

충정으로 충만된 사람은 신념의 화신, 자력자강의 제일강자이다.

앉으나서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생각하고 원수님만 믿고 따르며 천지가 진동한다고 하여도 원수님에 대한 믿음의 금선만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일편단심의 불패성, 이는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높이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일심이며 한몸이 그대로 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원수님을 우러러 다진 맹세를 절대로 변치 않으려는 신념의 화고부동성이다.

신념의 밑바탕은 량심이다. 량심은 참인간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량심은 당앞에, 조국앞에, 인민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설수 있는 마음이다.

우리의 량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늘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결한 마음이다.

령도자에 대한 량심과 의리, 바로 여기에 참다운 혁명가로 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빛나는 삶의 주인으로 되는 근본이 있다.

당과 령도자를 따르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길에서 구석진 곳이 없고 인생의 시작도 한마음, 마감도 한모습인 인간이 순결한 량심인, 의리인이다.

지난해의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기적적인 승리로 떨치게 한 자력자강, 이는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위대한 정신이고 투지이다.

뜻깊은 올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이다.

70일전투, 200일전투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한 단위들은 례외없이 자력자강의 열풍으로 우리의것이 아닌 온갖것들에 종지부를 찍고 원료와 연료, 설비를 국산화하였으며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려 현대화와 생산정상화를 실현한 자력자강의 선구자집단들이다.

강국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받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은 자력자강으로 당성, 인민성, 혁명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신념의 격전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충정으로 충만된 사람은 우리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제힘을 백천배로 강화해나가는 자력자강의 주로를 보무당당히 걸을수 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 그 일선에 위대한 당의 품에서 혁명을 알고 멸사복무의 정신을 체득하며 과학을 배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야 한다.

뜻깊은 올해에 나는 무엇으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는가.

이런 불타는 충정, 비상한 자존심과 승벽심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천만군민이 폭풍쳐 화답하여 일떠선 2017년,

원대한 희망안고 력사의 진군길에 나선 이해에도 천만군민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일편단심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년대기에 또 한돌기의 승리의 년륜을 자랑차게 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먄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네이삐도

먄마련방공화국 대통령

틴 죠 각 하

나는 먄마독립 6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할것과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월 4일 평 양

자자구구 새겨가게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희망찬 올해의 총진군에로 부른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일군들과 탄부들모두가 깊이 새겨안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이 신년사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빠짐없이 연구발취하도록 한데 이어 신년사에 대한 독보 및 학습담화를 하루사업의 첫 공정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자기 단위앞에 나선 과업과 수행방도를 옳게 찾고 그 관철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학습조직과 지도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지금 탄광에서는 더욱 높아가는 신년사학습열풍속에 올해전투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인민사랑의 화폭

새해의 첫아침 뜨거운 격정이 강산을 진감했다.

뜻깊은 올해에도 또다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실 력사의 명세를 다지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이 가슴에 와닿을수록 이 땅에 일심단결의 만발한 화원을 펼친 인민사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안겨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란것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0일전투를 눈앞에 둔 지난해 5월말 일요일마저도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산소공장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게 된것으로 하여 일군들이 최송함에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건산소공장건설형성안을 몸소 가지고오실줄 어찌 알았으랴.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공장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저렇듯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인가.)

이윽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써 공장의 제모가 안겨온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보건산소공장을 세계에 둘도 없는 공장으로 건설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계에 둘도 없는 보건산소공장.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철학이 뜨겁게 안겨왔다.

이날 공장건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의료상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자면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일떠세울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진정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인민사랑의 생명소와도 같은 의료용산소가 페부로 흘러들 때 인민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였고 그이의 사랑에 심장을 바치고 열정을 바쳐갈 불타는 맹세였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인민관,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장엄히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정과 열이 있어 인민은 한식솔로 대가정을 이루고 사회주의위업을 한모습으로 떠받들고있다.

천만군민 그 누구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그 어느 가정에 들려보아도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어있고 그 사랑은 그대로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맹세가 되여 흐르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사랑에 끌려 천만심장에 간직된 일편단심이 현실로 꽃펴나는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인것이다.

본사기자 감 원 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자

지난해에 이룩된 눈부신 성과의 요인

지난해는 주체혁명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변혁의 새 력사가 창조된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더욱 높이 떨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신비스러운 힘은 다름아닌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입니다.》

혁명의 전성기로 수놓아진 지난해의 성과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인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만리마시대의 눈부신 전진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 있다.

지난해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여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높이 떨쳐진 긍지높은 해였다. 지난해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적승리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게 된것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이 있었기때문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새로운 시대정신, 만리마속도가 창조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특히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할데 대한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한것은 우리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대재앙의 페허우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북부피해지역이 인민의 따스한 보금자리,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천지개벽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신념의 기둥으로 세우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투쟁한데 있다. 핵무기의 폭발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진 단결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이 지난해의 련속적인 철야전군에서 확증한 철리이다.

온 나라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진 지난해의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이 있는 한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억경속에서도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승리를 더 큰 승리로,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만난을 헤쳐나갈 신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이 있기에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지난해에 이룩된 모든 기적과 승리는 위대한 자강력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자강력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백두산에 시원을 두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히 강해지는 자강력은 선군조선의 무한대의 힘이다. 자강력은 강국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며 자력자강의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이 뼈에 새긴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지난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 겹쌓였던 해였다.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와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 날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가 조작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한두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랑찬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였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가 지난해에 남의 도움을 바라고 남에게 의존하였더라면 이처럼 큰 성과를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다.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강화되면 될수록 자기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의 투쟁방식과 창조본때로 모든것을 해결해왔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자강력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악랄한 침략책동과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동력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적들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하여도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새해의 총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용사들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당이 제시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윤 철 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농목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여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새해진군을 추동하는 드세찬 학습열풍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고 새해 첫 진군길에 나선 온 나라에 드세찬 신년사학습열풍이 일고 있다.

특히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신년사학습열풍이 대단하다.

이곳 당조직들에서는 학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신년사학습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여있는 대백과전서입니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독보와 강의를 일제히 진행한데 그치지 않고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으로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려고있다.

기계공업성 당조직에서는 신년사학습작전과 지도를 짜고들어 정무원들의 가슴이 드높은 학습열의로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

새해 첫 진군길에 펼쳐진 이채로운 화폭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반적으로 이맘때면 신년사에 대한 독보나 개괄강의로 만족하던 일군들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업을 훨씬 더 심화시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정열적으로 학습한데 기초하여 양력설에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업을 해나간 20여명의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본보기로 내세워 학습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신년사학습과정을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상정신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과정으로 전환시켰다.

상, 부상들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학습전투에서부터 대중의 기발이 되여 내달릴 각오와 열정을 안고 신년사학습을 올해 성앞에 나선 전투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끊임없이 심화시키고있다.

열기를 띠고 벌어지는 학습을 통하여 올해전투의 의의와 중요성 특히 자기 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명백히 알뿐아니라 격렬한 전투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할 의지가 더욱 굳어지고있다.

농업성 당조직에서는 신년사의 전반체계와 내용을 한눈에 알수 있게 직관물을 만들어 곳곳에 게시한데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나 항일유격대식학습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조직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먼저 뼈에 깊이 새긴데 기초하여 단위들에 내려가 격식없는 담화를 통하여 대중의 인식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문장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심장에 깊이 쪼아박도록 이끌어주게 하고있다.

신년사의 원문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면서 정무원들은 구태의연한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벗어나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로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릴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다.

국토환경보호성 당조직에서는 성안에 신년사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격동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즉시 국장들인 김현철, 리성천, 김원민, 리경심동무들부터 신년사학습전투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으며 원문통달에서 앞장선 그들의 실천적모범을 일반화하여 성안에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한편 청년동맹원 문명주동무와 직맹원 윤수련동무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여 누구나 승벽심을 가지고 신년사원문통달을 위한 경쟁에 적극 떠여들도록 하였다.

도시경영성 당조직에서는 신년사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을 중시하고있다.

이곳 책임일군들은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신년사학습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하면서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학습지도를 잘해나가고있다.

신년사학습에서 발휘되는 책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열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여 성안의 모든 일군들을 학습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이 새해 행군길의 첫 전투라는 관점에 철저히 서서 학습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전력공업성 당조직에서는 정무원들이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토론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곳곳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신년사에 대한 학습토론은 집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나선 전투과업수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안들을 더 많이 찾아쥐게 하고있다.

국가과학원 당조직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여부가 신년사학습전투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옳은 판점밑에 대중을 발동하며 항일유격대식학습열풍을 드세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드센 학습열풍속에서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들을 용감하게 타파해나가며 올해의 방대한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대책들이 세워지고있다.

이런 학습열풍은 모든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도 세차게 휘몰아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새해진군길에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새해 첫 진군길을 들끓게 하는 드세찬 학습열풍을 통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전투적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뜻깊은 올해에 더 큰 승리를 안아올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짐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정수

기대앞에서도, 포전에서도

학습열풍으로 뜨거운 전투장

새해 첫 전투가 벌어지는 원산구두공장 갑피직장현장의 분위기는 이채로왔다. 초급당위원장 진명화동무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해설해주고있었다.

재봉공들은 드바쁘게 일손을 놀리면서도 증폭기에서 울려나오는 초급당위원장의 목소리에 귀를 강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올해에 우리 〈때봉산〉구두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

이렇게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들을 단위의 구체적실정과 결부하여 해설해주니 모두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청신한 공기를 들이마시듯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겨안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초급당위원장의 흥분은 컸다.

사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긴장한 생산전투를 중단없이 내밀면서도 신년사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킬 방도를 적극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이 직장과 작업반들을 하나씩 맡고내려가 생산전투를 벌리는 로동자들을 대상으로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해설해주고 정치사업도 벌리자는 안이 나왔다. 전투장이 그대로 학습장소로 전환되게 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였다.

그 실효가 첫날부터 뚜렷이 나타났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초급당위원장의 열렬한 호소에 화답하는 종업원들의 심장의 박동인양 수십대의 재봉기들이 일제히 울리는 동음이 현장에 메아리쳤다.

말없는 《강사》

1월 4일 아침, 제명군 삼지강협동농장 제7작업반 2분조원들은 자급비료무지 옆에 세워진 이동식직관판앞에 모여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체계와 한눈에 안겨왔다.

자급비료상차작업이 시작되였다.

선동원 박영철동무가 걸이대를 걸싸게 휘두르며 말을 건넸다.

《정희아주머니,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앞에 어떤 과업이 제시되였소?》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지요.》 하고 거침없는 대답이 흘러나오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듯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번에는 리당위원장 리주남동무가 곁에서 일하는 농장원에게 올해 5개년전략고지점령을 위한 과업들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였다.

손가락을 짚아가며 자신있게 대답하던 농장원이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다. 머리를 기웃거리는 그에게 리당위원장은 직관판록을 가리켜보이며 말했다.

《저기 〈강사〉가 있지 않소.》

《정말!》 하며 직관판에 눈길을 박았던 농장원은 잠시후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일사천리로 신년사의 과업들을 쭉 내리엮었다.

《〈강사〉가 옆에 있으니 좋긴 좋수다!》

누군가의 말에 와- 하고 웃음판이 터졌다.

흥그러운 분위기속에 서로 묻고 대답하며 격식없는 학습토론은 계속되였다.

통통통…

만점을 싣은 뜨락또르의 발동소리가 울리였다.

상차작업을 끝낸 농장원들은 기세충천하여 포전으로 향하였다. 말없는 《강사》도 그들을 따라 새 전투장으로 옮겨가고있었다.

본사기자 김순영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함흥시당위원회 일군들

함흥시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학습을 올해 사상사업의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온 시에 신년사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뚫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시당위원회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의 첫걸음을 내짚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깊이 새기며 시당책임일군들이 내린 결심이였다.

시당책임일군들은 자신들부터 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고 중요단위들에 나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새해 첫날 함흥세멘트공장, 함흥시원료기지농장에 나간 시당위원장은 새해의 행군길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해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해설해주었다.

함흥편직농기계공장, 함흥목재가공공장, 함흥시인민병원에 나간 시당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올해의 투쟁구호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에 담겨진 깊은 뜻과 해당 단위의 투쟁과업이 명시된 부분들을 해설해주면서 신년사학습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양로원건설장과 함흥남새전문농장에 나간 시당위원회일군들 역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대중의 심장속에 심어주는것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힘을 넣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수를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학습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강의에 출연한 시당책임일군은 시의 구체적실정과 결부하여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강의는 당일군들이 신년사에 관통되여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을 깊이있게 체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원수님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떨사복무할 맹세를 더욱 굳혀주었다.

시당위원회는 원문통달, 학습토론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신년사학습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시당위원회는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데 큰 힘을 넣었다.

신년사의 기본내용을 직관화한 학습체계도를 만들어 대중모임장소들과 대중봉사단위들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습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함흥려객사업소와 함흥좁은철길운영사업소에 나간 시당위원회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려객뻐스와 렬차손님칸안에 신년사학습체계도를 만들어 게시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새해 행군길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기의 뼈와 살로 삼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 당사상사업의 첫 공정을 정확히 틀어쥔 시당위원회의 혁신적인 학습전투작전으로 온 시에 신년사학습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뼈와 살로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온 도에 신년사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당에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는 우선 도안에 신년사학습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전개하였다.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명활약을 하고있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보여주는 제제도 3만여부와 신년사학습참고자료 5만부를 기동적으로 만들어 도안의 당조직들에 배포하였다.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신년사의 체계도를 대중모임장소와 현장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여 뼈에 새기고 중요단위들에 나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새겨주기 위한 사업에 앞장섰다.

새해 첫날 순천화력발전소 타빈직장에 나간 도당책임일군은 로동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자고 호소하였다.

인포란광을 비롯한 도안의 탄광들에 나간 도당위원회 부장이상 일군들도 막장에 들어가 당원들과 로동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를 올해의 선차적인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신데 대하여 해설해주면서 대중을 혁신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도당일군들부터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여 뼈에 새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새해 첫 사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전투로 정하고 위원회안에 신년사학습열풍을 드세게 일으켰다.

도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새해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당책임일군은 도당위원회일군들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개괄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습담화와 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신년사학습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의 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남먼저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부서안의 모든 일군들이 신년사학습을 자기의 사업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하도록 이끌어나갔다.

신년사학습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모든 부서 일군들이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환히 꿰들고 올해전투목표수행을 위한 대책안들도 많이 찾아쥐게 되였다.

특히 도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원문통달에 큰 힘을 넣고있다.

그 과정에 신년사원문통달자들이 나오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신년사원문통달자대렬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에 새겨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을 사상사업의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학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있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온 도에 신년사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고있다.
—원산시인민위원회에서— 특파기자 신천일 찍음

예민하게 포착하고 완강하게 실천할 때

룡천군 동신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대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영농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난해농사를 잘 지어 군적으로 늘 뒤전에서만 머무르던 단위를 앞선 농장의 대렬에 들어서게 한 룡천군 동신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이 경험적이다.

농장일군들은 영농작전과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드는데서 로당원들과 오랜 농사군들과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애국적열의가 높았으며 농장의 지대적특성을 환히 꿰들고 농사경험도 풍부하여 어느때든 불리한 농사조건을 이겨낼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들을 남먼저 내놓았기때문이다.

지난해 1월초 어느날이였다.

새해농사차비를 서두르면서 농장일군인 백영숙동무가 원심을 많이 쓴것은 판재수보장문제였다. 농장은 하천을 끼고있으면서도 해마다 물이 부족하여 논벼생산에 지장을 받고있었던것이다.

방도는 무엇인가.

문득 머릿속 물길뜩에서 만났던 한 로당원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젊었을 때에는 물길의 물깊이가 한길이 넘어 아이들이 미역도 감았는데 지금처럼 무릎이나 겨우 치는 물을 가지고 가물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고 하였다.

농장일군은 그 말을 되새기며 로당원들의 집을 찾았다.

친혈육과 집안일을 의논하듯이 솔직하고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 스스럼없이 진정이 통하게 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묘안도 쏟아져나올수 있는것이다.

그는 로당원들에게 어떻게 하나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 농사군의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었고 경쟁적으로 내놓는 혁신적인 안들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 과정에 농장의 판개실태를 손금보듯 꿰들게 되였으며 물문제해결을 위한 중심고리도 찾아쥐게 되였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는 물길공사를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두 떨쳐나 짧은 기간에 연 8 500m구간의 물길바닥파기와 넓히기, 뚝쌓기, 흙판붙기, 여러개의 배수문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결과 포전마다 물이 철철 흘러넘쳐 가물을 모르고 안전하게 지난해농사를 지을수 있었다.

논갈이작전도 이렇게 조직하고 결속하였다.

농장에서 전반적인 포전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에 초점이 집중되였다.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장원들속에서 지금처럼 조락논이 계속 늘어나면 알곡증산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것이였다.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작업반장, 분조장들과 함께 포전에 나가 토양상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인은 해마다 깊이갈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논갈이를 한데 있었다.

농장에서는 즉시 깊이갈이를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논갈이전투를 시작하였다. 이때 매일 작업반들에서 들어오는 논갈이실적을 보고받아 총화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을 필지별로 분담시켜 그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풀어주며 논갈이전투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포전에 들어서서 지막대기로 깊이갈이를 재여보면서 엄격히 따져보고 하루전투를 결속하도록 함으로써 논갈이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게 하였다. 지난해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전해보다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1t이상 더 높이고 제2작업반의 일부 포전에서는 10t이상을 낸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농사조건이 불리할수록 늘 포전에 나가 농작물의 생육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시기적절한 대책들을 세운것도 본받을만 한것이다.

지난해 8월 중순 예전치 못했던 한파가 들이닥친다는 기상예보를 받고 농장일군은 이른새벽 포전으로 달려나갔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벌써 전반적인 포전들에 한파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듯 하였다. 그러나 동뚜아래와 골뚜들에서 연기가 분분 피여오르는 살림집주변의 포전들은 안전하였다. 바람막이대책을 세우거나 포전주변에서 연기를 피우면 한파에 의한 피해도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는데로 그의 사색이 이어졌다.

농장에서는 즉시 작업반, 분조별로 바람막이대책을 세우면서 짙은 연기를 오래동안 피울수 있게 눅눅한 짚검불들을 포전의 곳곳에 놓고 임의의 시간에 불을 지필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가을의 결과는 알곡증산성과로 나타났다.

현실은 일군들이 농사일에 몸을 푹 잠그고 영농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수록 농장원대중이 더욱 분발하고 알곡증산의 돌파구도 열어제낄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정영철

다수확의 큰 예비—과학적인 품종배치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새해 행군길에 떨쳐나선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이런 새로운 결의로 충만된 가슴들을 툭 터고 혁신의 길로 줄달음쳐가는 이들의 투쟁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농장일군들이 지난해의 논벼농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의 품종배치작전을 보다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적극 실천해나가고있는 사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사실 농장은 지난 시기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시적으로 앞장선 단위들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농장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지난해의 논벼농사에서 놓쳤다거나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따져볼수록 확실히 품종배치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럴만도 하였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거의 모든 논면적에 다수확품종인 늦종의 논벼종자들을 재배하였다. 모자라는 생육적산온도는 모판단계에서 보충해주고 비배관리도 알심있게 따라세웠다.

애쓴 보람이 있어 이삭패는 시기까지 논벼의 전반적생육은 좋았다. 례년에 없이 부쩍 친 아지마다에 달린 벼이삭들만 보아도 다수확은 문제없을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왔다. 하지만 9월초에 예전치 않았던 우박이 오고 기온은 정년보다 쭉 내려갔으며 대부분의 논포전들에는 물까지 한뽐나마 찼다.

배수양수기들이 쉬임없이 가동해도 재령강수위보다 낮은 못에 위치한 포전들에는 가을걷이가 끝나서도 물이 그냥 차있었다. 이것은 이삭여물기에 지장을 주어 천알질량이 예견했던것보다 보통 2g정도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농사결과를 놓고 이곳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종자선택과 품종배치를 철저히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해나갈 때 아무리 불리한 농업기상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였다.

수확량이 높다는 측면만을 보다나니 주판직욕망에 사로잡혀 품종배치에서 빈틈이 생겼다는 자책감이 밀려들었고 그럴수록 당의 농업정책을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려는 불같은 각오가 심장속에 든든히 자리잡았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다수확의 큰 예비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심장속에 쪼아박으며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농장의 불리한 토양조건과 엄혹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는 우량종자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품종배치를 진행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나간 해들의 일별, 월별대기온도를 빠짐없이 장악하였다. 또한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같은 계통안에서의 각 논벼품종들의 생물학적특성도 농장의 토양조건, 기후적산온도와 서로 대비해보며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아지치기능력이 강하면서도 여물기가 잘되는 중간종을 주품종으로 하고 여기에 올종과 늦종의 논벼품종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품종배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드세찬 과학농사열풍으로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각오를 안고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종자확보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갔다.

다수확의 큰 예비를 과학적인 품종배치에서 찾아낸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올해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기 위한 새해의 행군길을 즐기차게 이어가고있는 이들의 투쟁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 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일

사랑의 새 보금자리에 피여나는 행복의 웃음꽃

—무산군에서—

선경마을에 펼쳐진 뜻깊은 설맞이풍경

읍 158인민반에서

양력설명절은 한해치고도 어른, 아이 할것없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뜻깊은 명절중의 하나이다.

보람찬 한해를 보내고 희망과 신심에 넘쳐 맞이하는 새해의 첫아침 이 땅의 곳곳마다에서는 얼마나 환희롭고 즐거운 설맞이풍경이 펼쳐지는것인가.

밝아오는 해돋이와 더불어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이 땅의 그 어디에나 절세위인들을 우러러따르는 마음이 꽃물결되여 흐르고 거리와 마을, 집집마다에 펼쳐지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세배풍경과 함께 온 가족, 온 마을이 모여앉아 특색있는 명절음식을 나누며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즐거운 양력설명절.

하물며 몇달전까지만 해도 자연의 대재앙으로 한지에 나앉았던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이 궁궐과도 같은 새 집, 새 보금자리에서 맞이한 양력설명절의 기쁨과 행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무산군 읍지구의 중심에서 두만강기슭쪽으로 얼마를 나가느라면 첫눈에 보기에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아담하고 현대적인 주택지구가 나진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피해지역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편 다층아빠트들이다.

양력설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 이 주택지구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무산군 읍 158인민반에서는 밤이 깊도록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인민반원들이 한데 모여 새집들이경사후 맞이하는 새해의 첫날을 어떻게 하면 뜻깊게 보낼것인가를 토론하고있었던것이다.

명절당일날 인민반을 두편으로 갈라 배구경기를 벌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총별윷놀이와 장기경기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도 오늘의 이 기쁨, 이 행복을 한껏 터치기에는 무엇인가 모자라는것만 같은것이 그들모두의 심정이였다.

그날 인민반장인 한영애동무는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했다.

《배구경기와 윷놀이, 장기경기도 좋지만 어떻게 새해의 첫날을 그것만으로 보낼수 있겠나요. 오락회와 료리품평회랑 크게 벌립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온 마을이 들썩하게 아니 온 세상이 부럽도록 희한한 설맞이풍경을 펼쳐보자요.》

그리하여 류다른 모임이 있은 후 이 인민반에서는 윷놀이 및 장기예선경기와 료리품평회준비 등 명절을 뜻깊게 쇠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하루일이 끝나면 총별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윷놀이와 장기예선경기로 온 아빠트가 들썩거렸고 주부들은 저저마다 료리품평회때 쓸 음식감준비와 료리전습으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인민반의 꼬마들은 또 저들대로 초저녁잠마저 잊고 오락회때 내놓을 노래춤련습으로 흥성이였다.

드디여 밝아온 새해 첫날 무산군 읍 158인민반에서는 듣기에도 보기에도 처음인 이채롭고 흥겨운 설맞이풍경이 펼쳐졌다.

첫 순서는 민속오락결승경기. 매 층에는 림의 주장들도 있어 경기시작전부터 진지한 전술토의와 경기조직으로 여념이 없는데 한쪽에서는 인민반체육책임자인 3층 3호 리원석동무가 1층 1호 박춘실할머니와 함께 진중한 기색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가는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선수명단에 자기 이름도 슬쩍 넣어달라는 할머니의 요구에 어찌 《직무집행》에 들어가서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리원석동무가 원칙을 양보할수 있겠는가.

잠시후 시작된 경기는 처음부터 치렬했다. 예선경기결과에 따라 윷놀이결승은 1층과 4층간에, 장기결승은 2층과 3층간에 진행되는것이여서 온 인민반이 모두 경기에 참가하는셈이였다.

《모야!》, 《걸이야!》, 《장훈!》, 《멍훈이야!》

윷놀이판과 장기판에 바싹 붙어 긴장한 눈길로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의 열띤 모습도 좋지만 북장단에 맞추어 응원에 기세를 올리는 량편응원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볼만한것인가.

일진일퇴의 공방전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를 띠는 윷놀이경기며 상대편 《궁》을 포위하고 공격전을 준비하는 찰나 불의의 역습을 당해 진땀을 뽑게 하는 장기경기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상대편 《말》에 잡혀 다 이겼던 윷놀이경기를 플랫지 못한 아쉬움속에 발까지 동동구르는가 하면 통쾌한 마지막수로 상대편 《궁》을 놀려놓는 순간 온 방안이 떠나갈듯 환성을 터치는 행복넘친 모습들…

얼마후 경기에서는 승부가 났지만 사람들의 눈가에서는 웃음꽃이 사라질줄 몰랐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몸서리치는 대재난으로 모든것을 다 잃었던 그들이 전화위복의 대승리속에 마련된 오늘과 같은 행복과 기쁨을 어찌 꿈에선들 상상조차 할수 있었으랴.

민속오락경기에 뒤이어 진행된 료리품평회는 더욱더 사람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이번 기회에 덧들어진 료리솜씨로 온 가족, 온 인민반을 깜짝 놀래우리라 속다짐한 3층 4호의 장순애, 4층 1호의 한동실, 5층 1호의 전현옥녀성을 비롯한 주부들이 농마국수, 감자떡, 갓김치, 도루메기튀기, 도루메기식혜를 비롯하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갖가지 료리들을 특색있게 만들어내놓았던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만강기슭에는 저녁노을이 곱게 비꼈다.

즐겁고 보람찬 명절의 하루가 저물어가는 속에 불밝은 창가에서는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행복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럼없어라》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주며 뜻깊은 노래소리는 명절의 밤하늘가로 오래도록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새 학교의 류다른 운동회

무산군 주초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종소리가 울린다.

산촌의 유정한 정적을 깨치며 사랑의 종소리, 배움의 종소리가 정답게 울린다.

이른아침마다 성천수기슭에 메아리쳐가는 그 소리와 더불어 울긋불긋 새 솜옷에 새 책가방을 멘 나어린 학생들이 너도나도 《무산군 주초소학교》라는 큼직한 현판이 걸린 새 교사로 발걸음도 씩씩하게 행을 맞추어 들어선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자연의 대재앙으로 정든 배움터를 잃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은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더없이 훌륭하고 멋지게 일떠선 새 학교에서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를 마음껏 터치고있다.

지난해 12월 1일 무산군 주초로동자구에서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뜻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과 무더기비로 하여 폐허나 다름없이 되였던 성천수기슭의 학교터전에 도시나 벌방학교 부럽지 않은 현대적이면서도 아담한 새 교사가 우뚝 솟아나 첫 수업을 시작했던것이다.

창밖에서는 북방의 찬바람이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해빛밝은 교실들, 거울처럼 알른알른한 칠판과 새 책상이며 두툼한 깔개까지 갖추어진 의자들,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죤, 태양빛전지판과 축전지 등이 산골학교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갖추어진 교육환경이 봄날의 따스한 훈향마냥 아이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안았다.

그날 널다란 운동장이며 여러가지 현대적인 교육기재들이 그쯘하게 일식으로 구비된 교실들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했고 교원들과 학부형들은 고마운 우리 당의 한없는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흘리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재난을 당한 아이들의 눈동자에 한점 그늘이라도 비낄세라 그들모두에게 책가방과 교과서, 민들레학습장과 연필, 크레용을 비롯하여 갖가지 학용품까지 한가득 안겨주었으니 어머니당의 고마운 그 사랑,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전화위복의 기적과 더불어 솟아난 새 교사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되여 며칠후 체육의 날을 맞으며 진행된 운동회는 피해지역에 행복의 웃음꽃을 더욱 활짝 꽃피웠다.

면적이 무려 8 000㎡를 헤아리는 드넓은 운동장으로 교원들과 학생들은 물론 수많은 학부형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그야말로 주초땅이 생겨 처음 보는 류다른 운동회로 화하였다.

교원들과 학생들, 학부형들과 주초로동자구의 주민들까지 모두 떨쳐나선 가운데 여러가지 체육경기와 유희오락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그날 아이들의 체육경기를 보다 못해 마음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격정을 참지 못하고 뛰여든 학부형들이 드넓은 운동장에서 자식들과 함께 공도 치고 달리기도 하면서 마음껏 터치는 기쁨과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무산땅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오래도록 메아리쳐갔다.

성천수기슭에 울려퍼지는 수업종소리, 그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이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행복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신 현 규

수 필

사랑과 믿음의 증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쓰고사는 집이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증서인 입사증이 있기마련이다.

우리 생활과 너무도 가깝게 이어지고 례사롭게 대해오군 하던 살림집리용증서인 입사증이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의미로 새겨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얼마전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와 더불어 천지개벽을 이룩한 무산군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같은 사연, 꼭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였다. 그것은 우리 당의 은정속에 궁궐같은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 누구나 가보로 간직하고있는 새 입사증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민봉리에서 만나본 한 평범한 농장원은 새집들이를 한지도 퍼그나 되였지만 아직도 행복넘친 현실이 꿈만 같다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번씩 입사증을 펼쳐보군 한다고 목메여 말했다.

풍산리에서 만났던 한 로인은 그 귀중한 입사증을 액틀속에 끼워넣고 벽에 척 걸어놓으니 닳아질 걱정도 없고 대대손손 전해갈 가보라는 의미에서도 좋더라고 자랑담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들의 진정넘친 이야기를 듣느라니 무산군 읍에서 목격했던 가슴뜨거운 화폭이 다시금 생생히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19일은 평범한 날이였다. 하지만 그날은 뜻밖의 대재난으로 한지에 나앉았던 무산군의 두만강연안주민들을 비롯하여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아니 근로인민대중이 하늘처럼 떠받들리우고 가지가지의 인민사랑의 전설이 끊임없이 태여나는 내 조국의 력사에 있어서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였다.

이날 사회주의선경마을로 변모된 무산군 읍의 새 주택지구에서는 다른 북부피해지역과 마찬가지로 살림집입사모임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모두가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인 새 집의 주인들은 입사증을 받아안는 순간 끓어오르는 격정을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을 터뜨리고야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뜨거운 격정과 세찬 흐느낌속에 잦아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 듣고있었다. 고마운 우리 당에 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가의 메아리를,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웨침소리를.

그날의 감격을 되새겨보는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의 새 주인들이 받아안은 입사증이 결코 례사롭게만 안겨오지 않았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입사증이 없으랴만 그들이 이번에 받아안은 입사증을 어찌 단순히 살림집리용증서라고만 하랴.

그것은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 사랑의 증서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이 있는 한 이 땅에 시련과 난관은 있을지언정 불행과 아픔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더 좋은 앞날, 행복한 래일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의 증서로 우리의 심장속에 더 깊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산촌에 넘쳐나는 기쁨

풍산리진료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무산군 풍산리에 가면 양지바른 산기슭에 솟아난 현대적이면서도 아담한 건물이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북부피해복구전투의 나날 새로 건설된 리진료소이다.

진료소가 농촌진료소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일떠선 후 이곳 소장 송기호동무에게는 전에 없던 고민거리가 생겨났다. 그것은 무산군 읍쪽으로 뻗은 길목에 자리잡고있는 진료소로 리주민들은 물론 낯모를 길손들까지도 때없이 찾아오는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치료때문에 진료소를 찾는것이 아니였다.

언제인가 간호원 김효심, 권성애동무는 송기호동무에게로 달려와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러다가는 진료소의 새 출입문이 다 닳아버리겠습니다.

아까도 길가던 웬 손님이 진료소가 너무 희한하기에 한번 돌아보러 왔다고 하면서 무작정 들어서는게 아니겠습니까.

좀전엔 치료때문에 아침에 들렸던 삼구나무집할머니가 지나가던 길에 또 한번 구경해야겠다면서 매 방을 돌아보고 가더니…》

그들의 흐뭇해하는 기색에 송기호동무는 물론 김복녀, 배경순, 박유성동무를 비롯한 진료소의 의사들모두가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그랬다. 밝고 산뜻한 외장재로 단장되고 접수실과 약내주는 곳, 해산실과 주사실, 치료실과 의사실은 물론 위생시설과 세척시설까지 갖추어진데다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설비가 그쯘히 마련된 진료소가 이런 외진 산간벽지에 번듯하게 일떠섰으니 어찌 사람들의 마음이 절로 흥그러워지지 않을수 있으랴.

풍산리사람들은 오늘 새로 일떠선 진료소를 바라만 보아도 병이 저절로 낫는것만 같다고 저마다 이야기하고있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궁궐같은 새 집을 받아안은것만도 더없는 행복인데 현대적으로 일떠선 진료소에서 마음껏 의료봉사를 받으며 무병장수를 노래할 풍산리사람들의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본사기자

밤은 깊어가도

문암리 4인민반 박명서동무의 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을 내세워주며 후대들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더욱 꽃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양력설명절날 무산군 문암리 4인민반 박명서동무의 집은 흥겨운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우리 당의 따사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새로 일떠선 현대적이며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새해를 맞이한것만도 기쁜 일인데 연사군에 시집간 맏딸이 세배차로 집에 들어서고 거기에다 초소에서 두 딸의 편지까지 날아들었던것이다.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편지도 퍼그나 되였지만 아직도 눈앞의 현실이 꿈만 같은 그 들식구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을 적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을 때였다.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명의 사람들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리당위원장 박길만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이였다.

《이 집식구들과 함께 명절을 쇠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헌헌하게 말하며 박길만동무는 가지고온 액정텔레비죤을 집식구들앞에 내놓았다.

《이 집에 텔레비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박명서동무야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영예군인인데 새 집의 웃방에도 아래방에도 텔레비죤을 놓고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할게 아닙니까.》

리당위원장의 이야기에 집주인들은 저도모르게 눈굽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농장일로 바쁜 속에서도 언제나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피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이끌어주는 미더운 당일군이였다.

얼마전 새집들이를 한 박명서동무의 집을 제일먼저 찾은 사람도 박길만동무였다.

그날 살림살이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훌륭히 꾸려진 살림방들이며 부엌, 세면장을 일일이 돌아본 그는 문득 이제는 리용한지 퍼그나 된듯싶은 텔레비죤앞에서 오래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었다.

박길만동무가 양력설날 새 액정텔레비죤을 안고 영예군인의 집을 찾은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잠시후 박명서동무의 가정과 농장일군들은 새해에 더 많은 일을 하여 이 사랑, 이 은정에 보답할 결의를 안고 함께 노래도 부르면서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창가에는 어둠이 깃들었다. 그러나 박명서동무의 집을 비롯한 새로 일떠선 문화주택들의 창가마다에서는 오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새 보금자리에서 맞은 첫 양력설명절의 밤, 정녕 누리는 행복으로 즐겁고 보답의 맹세로 불타는 뜻깊은 밤이였다.

본사기자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두 재난이 새겨주는 진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우리는 왜 사회주의를 사랑하는가. 어찌하여 내 나라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는 우리거야라는 노래소리 그렇듯 뜨겁게 울리는것인가.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천여리 두만강연안의 선경거리, 선경마을의 집집들에서도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고있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대재앙을 입었던 조국의 북변땅이였다.

지난해 8월말 이곳에 들이닥친 태풍10호는 막대한 자연재해를 몰아왔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무더기비와 돌풍으로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자연이 가져다준 피해는 하나의 전쟁을 치른것과 같이 혹심하였어도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불행에 우는 리재민은 볼래야 볼수 없었다.

뜻밖의 재난으로 인민이 당하는 고통을 두고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하도록 하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피해복구전투의 선차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시고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해주시였다.

려명거리완공의 환희보다도 재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을 몇천배로 더 귀중히 여기시며 북부피해복구를 위한 거창한 작전을 진두지휘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온 나라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1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당과 국가의 강력한 조치들에 의하여 단 며칠동안에 일시 중단되였던 전력, 먹는물공급이 시작되였다.

도로와 통신망이 다시 이어져 식료품과 피복류, 의약품, 자재와 설비 등 피해복구용물자들과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무대들과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지켜가던 인민군군인들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앞을 다투며 도착하였다.

한편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옥백미, 고기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생활용품들이 공급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속에서도 아이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졌다. 뜻밖에 덮쳐든 자연재해로 부모와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교복과 민들레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들이 안겨지고 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행복의 야영길에 오르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전설이 태여났다.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인민을 위한 이런 중대조치가 취해진 례는 일찌기 없었다.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위력과 자력자강의 힘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두달 남짓한 기간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천여리 두만강연안에 선군시대 사회주의 새 선경을 펼쳐놓고야말았다.

대재앙의 페허우에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서 피해지역의 수만세대 주민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펴고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진것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으며 꿈속에서조차 그려볼수도 없는것이다.

10여년전 8월 《카트리나》태풍이 미국남부를 휩쓸었다.

50년래의 가장 파국적인 대재난을 몰아왔다는 태풍이 지나간 한 도시의 피해상황은 과연 어떠했던가.

물의 바다로 변한 도시, 물우로 떠다니는 시체들과 먹을것, 입을것도 없이 시체와 오물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주택들과 상점들에서 도적질한 《전리품》을 가득 넣은 커다란 자루를 등에 지고 동분서주하는 젊은이들, 밀차에 앉아 숨진채로 며칠째 담벽구석에 그대로 내버려지 있는 로파…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화한 도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만민복지》가 펼쳐지고 《만민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문명대국》 미국의 축소판이였다.

미국의 한 기자가 마치 전쟁을 겪은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방불케 한다고 말하였던 태풍피해지역은 3년세월이 지나도록 피해를 가시지 못했다.

혹심한 피해를 입은 곳에서 살림집도 먹을것도 입을것도 없이 생활하고있는 태풍피해지역 사람들, 그들은 비닐박막이나 누덕누덕 기운 천조박들로 움막같은것을 만들고 그안에 벌레처럼 꼬부리고 누워있는가 하면 구정물이 흐르는 하수도와 다리의 구석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길거리에 나와 구걸하거나 강도질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3년세월이 지났지만 태풍피해지역은 그 모양, 그 꼴이였다.

오죽하면 유엔사무총장특사가 미국의 《카트리나》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고 너무도 기가 막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데 그에 대해 똑똑한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고 미행정부를 로골적으로 비난해나섰겠는가.

《만민복지》, 《만민평등》은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성, 반동성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광고에 불과하다.

3년이 지나도록 태풍피해를 가시지 못한 미국의 《카트리나》태풍피해지역과 불과 60여일만에 전쟁을 겪은것과 같은 태풍피해후과를 털어버리고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사회주의조선의 천여리 두만강지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기만적인 《만민복지》, 《만민평등》을 부르짖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반인민성, 반동성을 그 얼마나 적라라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것인가.

사회주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락원이며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인민의 무덤이다. 이것이 8월의 두 재난이 새겨주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 치 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은 죽음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당시 신천군 부곡면에서 살던 한 녀성은 남편이 당원이라고 하여 놈들에게 체포되였다.

어느날 방 군 《치안대》에서 내려온 놈이 면 《치안대》놈에게 《빨리 〈빨갱이〉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한것을 엿들은 그는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도망가자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설마 한고향사람들을 죽이기야 하겠는가. 괜히 도망가다가는 없던 죄를 뒤집어쓴다.》고 하며 그의 권고를 뿌리쳤다.

그러나 그는 산자를 엮어대고 흙을 바른 벽체에 쉽게 구멍을 뚫고 밖으로 탈출하였다.

설마병에 걸려 적들에게서 인간성과 관용을 바라며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놈들에게 끌려나가 무리죽음을 당했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 그것은 죽음이다.

본사기자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토산군 백화협동농장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반제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여러 계기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며 날강도 미제가 있는 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수 없다는것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고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작업반들을 맡고나간 일군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군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 여러곳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실감있게 이야기해주고있다.

특히 리계급교양실의 리인숙동무는 이곳을 찾는 농장원들에게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 내용의 계급교양사진해설과 강의를 적동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가슴마다에 날강도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작업반초급일군들도 작업의 휴식시간이면 당보에 실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기사독보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사업을 진행하여 농장원들의 반제반미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복수심으로 심장을 끓이게

양덕군 은하협동농장에서 모든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니고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목격자, 체험자들과의 상봉모임, 웅변모임 등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날강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악랄성을 똑똑히 알고 놈들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심장을 끓이게 하고 있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양덕땅에 기여들어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만행자료를 가지고 진행한 계급교양은 당원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천백배의 복수심을 가지고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였다.

오늘 이곳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 심정으로 새해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선 희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강령적지침으로 새겨안은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승리의 기치이다. 신년사에는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여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도 어느덧 70년이 넘었다.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렬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다.

오늘 조선반도는 군사적대치의 첨예성과 무력대치의 집중도에 있어서 그 어느곳과도 비교할수 없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시로 날카롭게 대치되어있고 폭발전야의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다. 더우기 지금처럼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이 극한점에 이른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다. 그것은 불피코 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다. 결국 전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민족뿐이다.

우리 겨레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면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우리 공화국은 군사분계선지역 특히 서해 5개 섬일대에서 군사적충돌을 막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서해열점수역에서의 우발적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력사적인 10.4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지난 2007년에 채택된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그곳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만일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실무적방도들이 제시된 10.4선언이 성실히 리행되였더라면 북남사이에는 연평도사건과 같은 엄중한 사태들이 빚어지지 않았을것이며 군사적긴장이 대폭 완화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리였을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무력대고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였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침략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는 미국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년례행사처럼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그 무슨 《북핵위협》과 《도발대비》라는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에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며 《키 리졸브》, 《독수리16》,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북침핵선제공격훈련들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침략책동을 끝장내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이 날로 엄중해지는 사태하에서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씨이 터지지 않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당국은 미국의 《북핵위협》나발을 영무새처럼 외워대면서 상전과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난해에도 괴뢰호전광들은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족의 정정당당한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소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사이에 충돌위험을 고조시키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

특히 괴뢰들은 무력증강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기본고리로 삼으면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마구 끌어들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소동을 광기적으로 감행하였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주되는 요인이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총부리를 맞대고 싸워야 할 주적으로 대하면서 전쟁책동을 일삼는다면 군사적긴장과 충돌은 절대로 피할수 없다.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비극이 세기를 이어 오늘도 지속되고있는것은 결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에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외세와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벌어졌기때문이다.

지난해의 력사적교훈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이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북남관계가 날을 따라 악화의 길로 줄달음친것은 전적으로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세력의 준동때문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된서리를 맞았으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더욱 암담해졌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게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범죄적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이 종식된다면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될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의 중대한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군사적도발망동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가장 성스러운 투쟁이며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 필승의 애국위업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침략적도전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필승의 기치로 추켜들고 하나로 굳게 뭉쳐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심 철 영

자력자강으로 승리해나가는 공화국

남조선 각계가 격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이것이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바로 이것이 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이 적대세력의 악랄하고 가혹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적신화들을 창조해나가는 장이적인 화폭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정치평론가 장영준은 높은 자주의식,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북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가혹한 봉쇄속에서도 언제 한번 남에게 구걸의 손을 내민적이 없다.

북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왔다.

연길폭탄을 만들어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싸운 그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상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자력의 도술로 세기를 주름잡아온 북이 오늘은 세상을 깜짝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잡지 《민》은 《자력갱생의 길을 걷는 북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북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갈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그것은 국내에서 채취가 가능한 에네르기를 바탕으로 자기 땅에서 나는 원료를 가지고 자기의 과학기술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북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계들을 만들어내고있으며 그 성능은 대단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남조선경제전문가들은 북이 인공지구위성발사 하나를 통해서도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효성을 뚜렷이 증명하였다고 하면서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경제강국건설에서 단번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 성원은 북이 모든 면에서 패권을 쥐려는 배짱을 가지고 일찍부터 첨단기술개발을 과학기술의 주요목표로 내세웠다고 하면서 북은 자력갱생을 중시하여 상당히 독특한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이 상승기로에 확고히 들어섰다. 》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북은 정치군사강국, 핵강국, 우주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되었다. 》,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오늘의 북은 세계를 앞서나가는 문명국으로 찬란하게 일떠서고있다. 》, 《북이 가까운 장래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가 될것이다. 》는 글들이 련일 실려 각계층 인민들의 심금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목격하면서 남조선 각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무전무혈대승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신화를 창조하고있는 이북의 기상은 이남민중의 경탄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새 세기 주체의 선군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은 강국건설이라는 자기의 목표가 결코 리상이 아니라 현실로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김정은시대의 번영기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 《북은 세계를 깜짝놀래우는 변혁을 안아오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이 상승기로에 확고히 들어섰다. 》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북은 정치군사강국, 핵강국, 우주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되었다. 》,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오늘의 북은 세계를 앞서나가는 문명국으로 찬란하게 일떠서고있다. 》, 《북이 가까운 장래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가 될것이다. 》는 글들이 련일 실려 각계층 인민들의 심금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박근혜를 심판하는 마지막날까지

남조선야당들 박근혜의 망발을 단죄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야당들이 1일 그 무슨 기자간담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역도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으로 직무정지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 무슨 모임을 가진다는것은 당치않은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박근혜가 탄핵에 따르는 직무정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있거나 탄핵을 가결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려는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대통령》으로서 기자들을 만난것인지 피의자로 만난것인지 조차 알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박근혜가 국민과 《국회》의 탄핵을 받고도 여전히 《대통령》행세를 하고싶어한다고 비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박근혜가 궤변과 후안무치로 일관된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새해벽두부터 국민과 전쟁을 하려 한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국민의 당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할 일을 다했다. 》는 박근혜의 립장표명을 천인공노할 일, 후안무치한 언행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는 304명의 아이들이 차디찬 물속에서 죽어가는동안 《대통령》은 머리손질로 시간을 허비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막말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력사에 맞서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자질은 고사하고 공사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이번 발언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부인하려는 피의자《대통령》의 비겁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성토하였다.

미국의 《싸드》배치기도를 남조선인민들 배격

보도에 의하면 김천과 성주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녀성단체성원들이 2일 서울의 롯데백화점앞에서 괴뢰국방부의 《싸드》배치책동을 배격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면하게 살아오던 녀성들이 국방부의 《싸드》배치결정발표이후 지금까지 초불을 들고 투쟁을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배치되면 배치지를 포함한 어느곳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싸드》는 전쟁무기이지 평화를 지향하는 요소로서 남조선의 안보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과 일본에만 리익이 된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무기인 《싸드》를 배치하는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국정》롱락의 주범인 최순실이 엄청난 리익을 얻은것이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무기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일환으로 되는 《싸드》배치계획은 즉시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롯데측이 《싸드》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경우 롯데상품불매운동을 벌릴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롯데측이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하면서까지, 주변나라의 경제보복을 당하면서까지 《싸드》배치부지를 내주는 리유가 무엇인가를 온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괴뢰외교관들속에 만연된 범죄행위

지난해 12월 30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괴뢰외교부 서기관의 성범죄행위가 적발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자는 서울의 어느 한 식당에서 손전화기로 더러운짓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전에 그는 시내의 뻐스안에서도 녀성들을 상대로 추잡한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한다.

지금 괴뢰외교관들의 성범죄행위가 련이어 터져나와 사회적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칠레에서 한 외교관이 미성년을 성추행하고 중동의 어느 한 나라에 주재한 괴뢰대사가 녀직원을 성희롱한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자들이 국제무대에 낯짝을 쳐들고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것까지 하고있으니 세계적망신거리가 아닐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역적패당의 비호밑에 감행되고있다는것이다.

이번에 괴뢰외교부 서기관의 성범죄행위가 드러났을 때 경찰과 검찰이 처음부터 이자의 신분을 숨겨온데서 그것이 뚜렷이 실증되고있다.

꼭뒤에 무은 불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부정추문사건의 장본인, 공범자들을 닮아 하급졸개들속에서도 각종 추문행위가 만연되여 민중의 저주를 받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꾸바에서 혁명승리기념일에 즈음하여 열병식 및 군민집회 진행

꾸바의 아바나혁명광장에서 혁명승리기념일에 즈음하여 2일 열병식 및 군민집회가 진행되였다.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까스뜨로동지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수천명의 군인들, 청소년들, 시민들과 함께 열병식 및 군민집회에 참가하였다.

라울 까스뜨로동지가 열병식을 사회하였다.

군민집회에서 여러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각계층 군중은 《피델 만세!》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꾸바인민의 반제, 반미투쟁의 승리를 경축하여 시위행진을 벌렸다.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의 신년사

중국의 습근평주석은 신년사에서 2016년은 중국인민에게 있어서 잊을수 없는 한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해에 중국인민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다그치고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고 하면서 새해에도 광범한 인민이 마음을 합쳐 곤난을 극복하고 루신할 때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타이국왕 마하 바지라롱꼰은 신년연설에서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단결만이 앞으로 타이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평화와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된다고 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화해와 단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딴마대통령 딘 죠는 력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종족들이 단결할 때마다 나라는 크게 부흥하였다고 하면서 새해에 전체 주민들이 단결의 정신을 발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련방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남아프리카대통령 자코브 제꼴레이놀레키사 주마는 올해 정부의 주요과업은 흑인들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국가경제발전의 지도적력량을 개혁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방위상의 야스구니진쟈참배에 강력히 항의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지난해 1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방위상의 야스구니진쟈참배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날 일본방위상 이나다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고 침략전쟁을 미화한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것은 일본정부의 일부 각료들의 그릇된 력사관을 다시금 보여준것이라고 까밝혔다. 그는 일본수상이 국내와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침략력사를 바로 보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싸이버공격사건으로 격화되는 로미대결

얼마전 미중앙정보국이 로씨야가 싸이버공간을 리용하여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씨야가 자국에 보다 《융화적인 인물》이 백악관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싸이버공격을 가하였다는것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주요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정보기관들이 해킹당한 수천건의 정보자료들을 위낄릭스에 제공한 개별적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그들이 로씨야정부와 련관되여있다고 전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7월 미국에서는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민주당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싸이버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전국위원회 지도부성원들이 자기 당의 다른 후보자를 제쳐놓고 힐러리를 편향적으로 지지한 내용이 들어있는 전자우편 1만 9 000건과 29건의 음성메세지가 해킹당하여 언론에 공개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여러 주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콤퓨터망이 또다시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

미국의 정계인물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 로씨야가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초기에는 로씨야가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해킹공격을 단행했다고 떠들었지만 후에 와서는 이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로씨야정부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다 엄중시하였다. 지어 민주당의 한 유력인물은 이번 사건을 로씨야의 싸이버공격에 의한 워터게이트사건이라고까지 규정하였다.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후 미국인들속에서 로씨야에 의한 선거조작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바로 이러한 때 미중앙정보국이 우와 같은 결론을 내린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교위관리들이 주장해온 로씨야의 선거개입설의 《신빙성》을 보다 든든히 안받침해주는 계기로 되였다. 미국의 주요정보기관 책임자들도 미중앙정보국의 결론에 공감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현재 로씨야는 미국의 주장을 체질화된 반로씨야적태도의 발현으로 보사하면서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은 자국이 싸이버공격을 하였다는 미국의 한 텔레비죤방송의 보도를 들고 몹시 놀랐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일부 로씨야인들은 지금 미국이 《앉은자리에서 미국대통령선거전을 취락펴락하는 로씨야의 위력》을 부각시키고있다는 야유조소까지 하고있다.

임기가 다된 현 미행정부가 로씨야의 선거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며 복잡하게 놀아대는데는 노리는 목적이 있다는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것을 보면 우선 자국내 국민들속에 로씨야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국가라는 인식을 뿌리깊이 심어주어 지난 시기 저들이 일관하게 추진해온 대로씨야강경정책이 정당했다는것을 립증하자는데 있다는것이다. 적지 않은 정세전문가들은 민주당세력이 앞으로 이에 토대하여 로씨야와의 관계개선을 시사한 공화당주도의 다음기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 압박함으로써 미국정치권내에서 우세를 확보해보려 하고있다고 보고있다. 실지로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있다. 벌써부터 랑당은 로씨야의 선거개입문제를 놓고 호상 상대방을 헐뜯는 말다툼질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다른 또 하나의 견해는 미국이 로씨야를 《싸이버위협을 일삼고있는 악마》로 몰아붙여 이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고립을 실현하려 한다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미국민주당에 대한 싸이버공격은 로씨야가 서방에서의 선거과정을 은밀히 방해하기 위한 깜빠니야를 개시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로씨야적인 서방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로씨야의 시도가 모름지기 계속될것이다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크레믈리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틀림없이 행동의 초점을 유럽으로 돌려 올해에 진행되는 네데를란드, 프랑스, 도이췰란드에서의 선거과정에 영향을 줄것이라는 예고까지 하고있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방송은 도이췰란드의 일부 이름있는 정치가들의 콤퓨터들에 대한 로씨야해커들의 공격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정보신호》는 싸이버공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유럽나라들로 하여금 로씨야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결국 미국은 로씨야와 유럽사이의 관계에 또 하나의 불화의씨앗을 심어놓으려 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로씨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싸이버공격을 정당화하자는데 있다는것이다.

미국은 《로씨야의 파렴치한 내정간섭행위》를 더욱 여론화하면서 자국내에서 로씨야와의 대결기운을 고취하고있다.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미국대통령선거기간에 발생한 로씨야의 해킹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것을 명령하였는가 하면 미국이 로씨야의 도발에 대응하여 싸이버보복공격을 단행할것이라고 력설하고있다. 그로 하여 싸이버공간에서는 로미사이에 대규모적인 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를 놓고 주요외신들은 《싸이버공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였다. 》고 평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로씨야의 싸이버공격사건으로 로씨야와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서방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더욱 심화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ㄱ-71002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